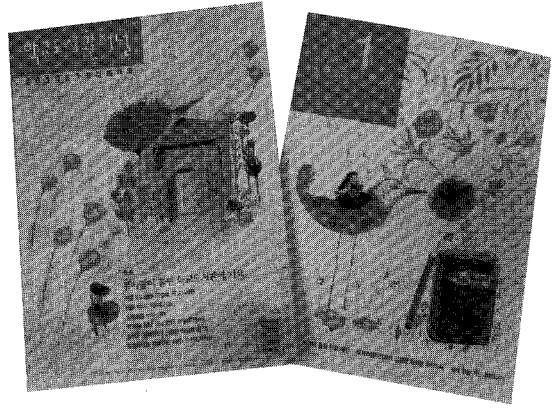


인 · 터 · 뷰

Interview

《학교도서관저널》 세상에 얼굴을 내밀다



지난 3월 1일 《학교도서관저널》이 창간되었다. 도서관계로서는 무척 반갑고 기쁜 일이었기에 《학교도서관저널》을 많은 도서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이에 《도서관문화》 편집팀도 《학교도서관저널》 한기호 발행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을 찾아, 도서관을 연상시킬 만큼 책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세상과 마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저널이 제 집 찾아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도서관저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행·사진: 심효정, 최정화



먼저 《학교도서관저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저널, 특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저널이 드문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저널》 창간이 도서관계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학교도서관 저널 창간에는 문학동네, 창비, 사계절, 책세상 등 15개 출판사가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계가 앞장서서 《학교도서관저널》은 창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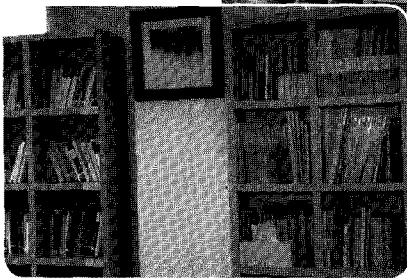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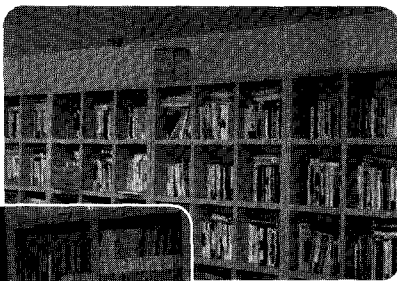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학교 내의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결국은 학교 교육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학교개혁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책 읽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더 나아가 읽기 뿐 아니라 쓰기로의 교육, 또 독서를 하고 그 감상과 내용을 서로 나누는 독서공동체문화를 통해 공동과 토론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해나간다면 창의력이 중요한 현 시대의 요구에도 적합하고 학교교육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출판계 역시 도서관계만큼이나 도서관, 학교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의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저널》이 다른 도서관계 저널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획부에서 고민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그리고 저널 구성 중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도서관계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는 《도서관문화》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도서관계》라는 저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저널은 도서관계 전체를 아우르지만, 《학교도서관저널》은 학교도서관이라는 특정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이 나라의 미래주역이 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만큼 《학교도서관저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정보, 독서문화·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 교과교사, 사서교사, 사서를 위한 정보, 학교도서관에 관한 좌담, 도서관 동아리 소개, 책에 대한 서평, 카툰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저널》의 핵심은 학교도서관이 매우 재미있고 다양하며 쓸모있는 공간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책으로 가득한 《학교도서관저널》 사무실

좀 더 대중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알기 쉽게,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월간으로 《도서관문화》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널을 만드는 일은 많은 생각과 작업시간을 요합니다. 《학교도서관저널》은 창간특대호만 보더라도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과 450여쪽이나 되는 추천도서목록이라는 부록까지 같이 발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저널》을 만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현재 몇 분 정도가 기획 등 실제적인 업무에 참여하고 계신지, 조직구성 등이 궁금합니다.

❖ 《학교도서관저널》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월 초, 사무실이 문을 연 것은 9월 초, 저널 발간은 2010년 3월 초입니다. 오랜기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널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구요. 현재 편집주간 1분, 편집위원 9분에, 도서추천위원은 28분이 계십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책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을 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5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집위원들은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출판기획자, 작가, 대학생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집회의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학교도서관저널》 창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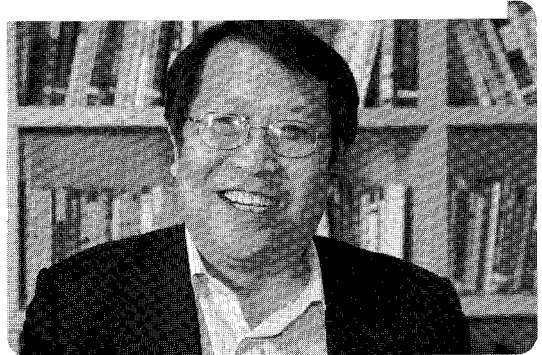
저널 구성 중에 추천도서 선정과 책과 관련된 서평을 수록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 추천도서 선정과 책 서평은 다양한 분야의 도서추천위원과 공개적인 서평위원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평위원은 현재 60명 정도 활동하고 있지만, 향후 300명 정도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추천도서는 학교도서관이 대상인만큼 크게 어린이분야와 청소년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르는 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환경·생태, 예술·문화·체육·기타로 구분하고요. 단 어린이분야에서는 그림책 장르를 추가하였습니다. 추천도서선정은 9개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한 뒤 전체 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들의 선별을 거쳐 서평과 함께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책은 매달 60-70권에 이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저널》이 유가지로 판매되고 있으며, 장간특대호의 경우 20,000부 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저널》 마케팅의 핵심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출판계에 오랫동안 종사했지만 사실 20,000부 발행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저널》 발간과 함께 학교도서관, 서평, 글쓰기 등과 관련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폐교 등을 활용해서 주말에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가 함께 책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저자를 초청해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도서관정책포럼 등을 개최해 학교도서관뿐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교육도 성숙하고, 《학교도서관저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인터뷰 중인 한기호 발행인



끝으로 《학교도서관저널》이 앞으로 더욱 확장해나갈 부분은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판계에서도 저널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출판계 입장에서 도서관계에 바라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말씀하신대로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그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에 띄만한 활발한 협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저널》 창간을 계기로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과 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도서관과 책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저널》은 사서, 사서교사, 교사, 작가, 평론가, 학생, 학부모등 생각이 저마다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대해가며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계나 출판계나 좀 더 능동적 자세, 넉넉한 마음, 포괄적 사고를 통해 학교도서관과 도서관, 출판계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